

열왕기하 5.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 (왕하 5장 1-27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병을 고침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사례하고자 하였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그 일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자신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 '나아만' 장군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 왔습니다. (1-7 절)

1) '나아만'은 누구인가? (1 절)

- 이름의 뜻은 '즐거워하다'
- 직책: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불림.
 - 참고로 아람은 오늘의 '시리아'를 말함.
- 그런데 특별히 그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 1 절 주목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 곧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 참고: 시리아와 앗수르(이라크)의 전쟁

- 기원전 10 세기경, 앗수르 왕 '살만에셀' 3 세가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나아만'이 이끈 시리아 군대가 저들을 격퇴시키며 시리아를 지킴.
- 그로 인해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앗수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됨.

-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앓고 있었음!

2)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던 한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병을 알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해 들려 주었습니다. (2-3 절)

- 어린 여종은 누구인가?
 -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
 - 여종은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 병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 증거!'
 -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아람 땅에 증거되게 하셨음!

3) '나아만'은 즉시 아람 왕에게 어린 여종의 말을 전하였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 친서를 써주면서 병 고침을 받고 올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4-6 절)

-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그대로 믿은 일과, 그 말을 듣고는 친히 친서를 써 주면서 군대 장관을 북이스라엘로 보내 주는 아람 왕의 결정은 참 신기한 일!
 - 이는 우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ex: 애굽 왕 '바로'와 비교!)

- 친서의 내용 =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6 절)
- 이때 ‘나아만’은 왕의 친서와 함께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찾아 감!
 - 참고로 은 십 달란트는 약 342kg + 금 육천 개는 약 68.4 kg.

4)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7 절)

- ①.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한탄함!
 - >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죄를 회개하거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 ②. ‘여호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며 탄식!!
 - ③. 아람 왕이 이 같은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빌미를 삼고자 하는 일로 판단!!
-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
 - 아람으로 끌려간 어린 여자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왕은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
 - 종종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믿음만 못할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됨!

2.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8-14 절)

1) 북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옷을 찢고 한탄한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연락하였습니다. (8 절)

- 그 이유는?
 -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
 -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

2)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대하였나요? (9-10 절)

- 직접 나아가 맞이하지도 않고, 그저 사환을 시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라고만 전함!
- 참고: 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했을까?
 - ①. 요단강 = 이스라엘의 거룩한 강
 - ②. 목욕하는 행위 = 정결 의식 ->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는 필수 예법!! (레 14:8,9)
 - ③. 숫자 7 =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 > 따라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 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3) 그럼 이와 같은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 했나요? (11-12 절)

- ①. 크게 노함!
 - 얼굴도 보여 주지 않은 ‘엘리사’의 행동은 분명 ‘나아만’을 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

②. 자기 생각에 갇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함!

- a.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며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지며 기도라도 해야만 했을 것!
- b. 몸을 씻을 바에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다고 불평!
- 참고로 실제로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주변에 장미 꽃을 비롯한 여러 수목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강으로 유명했다고 함.

③. 이런 불평과 원망은 결국 분노로 변함!

- 그래서 그 즉시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남’!

➤ 참고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

-

4) ‘나아만’이 분노하며 다메섹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13-14 절)

▪ ‘나아만’을 설득하는 종들의 자세를 주목!

- 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주인을 모독하지 않고 공손하게 권함!
- ②.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나아만’의 마음과 자세를 생각나게 해 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 ③. ‘엘리사’의 말(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해 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과 충고의 말을 해 주고자 한다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공손하게 권면해 주는 성도들이 되자!

- ‘나아만’이 종들의 권면을 받아 들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음!
-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남을 잊지 말자!

3.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니다. (15-19 절)

1)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온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5 절)

-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시 139:7-10)

2) ‘엘리사’는 제차 예물을 받아 달라고 간청하는 ‘나아만’의 요청을 굳게 거절하였습니다. (16 절)

- 그럼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려는 예물을 거절하였을까?

-

3) ‘나아만’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7 절)

- 특별히 이때 ‘나아만’은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칭함!
 -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겸손한 신앙자의 자세!
 -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늘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
- 그럼 왜 ‘나아만’은 노새 두 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 가고자 했을까?
 - ①.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 앞에서(15 절)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생각!
 - 이는 곧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 ②. 따라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직접 가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판단!
 - 이는 곧 ‘나아만’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

4) 이와 함께 ‘나아만’은 특별히 자신이 아람으로 돌아가 아람 왕과 함께 림몬 신상에 절하게 되는 행위를 ‘엘리사’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18-19 절)

- 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①. ‘나아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회개와 결단은 온전하지 못했음!
 - 왜냐하면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가르치기 때문!
 - ②.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진 못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
- ‘엘리사’는 ‘나아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복을 빌어줌!

4.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0-27 절)

1) 아람으로 돌아가던 ‘나아만’의 뒤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급히 따라왔습니다.(20-21)

- ‘게하시’의 자기 생각!
 - ‘엘리사’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결코 받지 않았지만, 자신은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무엇이든 그에게서 받아 내겠다고 맹세함!
 -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 ‘나아만’은 자신의 뒤를 급히 따라온 ‘게하시’를 보자마자 반가운 맘으로 친히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아 주었음! -> 이것은 변화된 그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

2) ‘게하시’는 ‘엘리사’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두 명의 제자를 위해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22-23 절)

-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란 생각이 듭!
 - ‘나아만’의 종들은 주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도움!
 -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는 탐욕에 이끌려 스승의 이름을 팔고 불의한 재물을 취득!
-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엘리사’와 함께 있고, 제자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 ‘나아만’은 ‘게하시’를 위해 두 명의 종에게 은 두 달란트와 옷 두벌을 가져다 주라고 명함!
 - 이는 곧 ‘게하시’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준 것 -> (은 한달트 = 약 35kg)
 - 이때 ‘게하시’는 어떤 맘이 들었을까?

3) 집 근처 언덕에 도착한 ‘게하시’는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 보낸 후, 받은 예물을 자신의 집에 감추었습니다. (24-25 절)

- 그 후 ‘게하시’는 어디를 다녀오냐는 ‘엘리사’의 말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함!
 - 거짓은 거짓을 낳고, 죄는 죄를 낳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말자!

4) ‘엘리사’는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게하시’를 꾸짖은 후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6-27 절)

- 26 절의 ‘엘리사’의 책망을 주목!

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 ‘내 마음’ 곧 ‘엘리사’의 마음이 그 곳에 함께 있었다는 말!
 -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이 그가 거짓을 말하며 범죄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의미!!
 - 악한 사탄은 종종 보는 사람 없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란 착각 속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②.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 이 말은 당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받은 은으로 ‘감람원이나 포도원 혹은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
 -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악한 생각을 들어나게 하시는 분!

- 탐심의 맘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한 ‘게하시’는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그대로 옮겨 자손들까지 고통 받게 되었음!
 - ‘게하시’가 받은 징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5.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6. 중보기도 나눔